

인터뷰

제4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포장관련)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42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는 무역 5천억달러 달성 등 무역진흥에 기여한 수출유공자 7백82명에게 산업 훈·포장과 표창이, 1천3백33개 업체에 수출의 탑이 각각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대표 등 3개 대기업과 신아유순언 대표 등 3개 중소기업의 대표가 수상하게 됐다.

수출의 탑 수상업체는 2004년 1천1백91사보다 1백42개 증가한 1천3백33개사로 대기업 84개사, 중소기업 1천2백49개사가 선정됐다.

국내 포장관련 업체 역시, 동일알루미늄(주)이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 화신기계공업(주), 동원시스템즈(주), 워더스케미칼(주), (주)프로템 등의 업체가 수출탑을 수상했다. 본 고에서는 제42회 무역의날에서 수출의 탑을 수상한 포장관련 업체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1억불 탑 코오롱유화(주)



배 영 호

코오롱유화(주) 대표이사

충실히 다져온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세계일류기업을 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코오롱유화(주)(대표이사 배영호)는 제 42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석유수지 및 400여종의 화학제품 제조사로서 해외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1억불을 달성한 것이다.

코오롱유화(주)는 납입자본금 93억원으로 1976년 국내 최초로 석유수지를 개발한 종합화학회사로서 고무, 도료, 접착제에 주로 쓰이는 석유 수지류의 페놀수지, 폴리우레탄수지, 고흡수성수지, 정밀화학제품 등 현재 450여가지의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국내사업장 4개소, 해외사업장 1개소(중국), 기술연구소 1개소로 본사 포함 총 460여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ISO 9001, 14001, OHSAS 14000 품질, 환경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인 신규 투자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일류 종합화학회사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억불 탑 국도화학(주)



김 경 태

국도화학(주) 대표이사

국도화학(주)(대표이사 김경태)이 제42회 무역의 날에 국내 EPOXY 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과 기술력중심의 비가격영업을 전개하여 전세계 주요 고객들

의 신뢰를 얻음으로서 꾸준한 수출증가가 이루어져 금년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출은 전 세계 약 60여개국에서 이루어 졌으며, 특히, 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추진된 중국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초년도인 2005년에 매출 및 수익창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국도화학의 수출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신규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 및 영업활동으로 국도화학이 글로벌마케팅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확고한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도화학은 향후 중국 및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수출영업을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EPOXY 및 경화제의 글로벌리딩 회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7천만불탑 동일알루미늄(주)



현 석 원

동일알루미늄(주) 대표이사

알루미늄 호일과 열교환기 제조 전문 업체인 동일 알루미늄(주)(대표이사 현석원)이 제 42회 무역의 날에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동일알루미늄은 1995년 '1천만불 수출의 탑'과 2000년 '3천만불 수출의 탑', 2004년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제품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으로 '7천만불 수출의 탑'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높여, 수출역군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수행

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현재 동일은 각종 연포장재, 냉·난방 등의 공조시설용과 라디에이터 등의 열교환용 FIN재, 전기, 전자, 전선용재, 건축용재, 담배 포장지용 접합지, 가정용품 알루미늄 박 및 에어컨용 열교환기를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제품생산과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투자를 위해 2004년 8월 INDIA에 현지법인을 설립, 해외시장확대의 발판기지로써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리고 경남 김해에 동일알루미늄 제2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량 확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5천만불 한국쓰리엠(주)



마이클로만
한국쓰리엠(주) 대표이사

한국쓰리엠(주)(대표이사 마이클 로만)은 '제4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 5천만불탑'을 수상했다.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무역진흥에 기여한 수출유공자 및 기업체에게 산업 훈, 포장 및 표창, 수출의 탑을 시상하는 기념식에서 한국쓰리엠은 지난 한 해 동안 수출액 5,393만불을 달성해(약 566억원) 2004년 '수출 3천만불탑'을 수상한지 1년 만에 '수출 5천만불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성과는 한국쓰리엠이 수출 제품의 다각화를 통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꾸준하게 수출물량을 증대시켜 온 결과로 보인다.

특히 주문 처리 소요 일수(Order Cycle Time) 단축 등 서플라이체인 서비스 증대 노력을 통해

3M 자회사로의 수출이 증가된 덕분으로,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휘도 강화 필름, 휴대폰에 적용되는 열접착필름(Thermal Bonding Film), 산업용 테이프(Double Coated Tape), 광고용 필름, 의료용 심전도 전자전극(Electrode) 등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현재 한국쓰리엠은 가정용 수세미를 비롯한 총 835개 제품을 중국, 홍콩, 대만, 미국, 호주, 프랑스 등 48개국의 3M 자회사에 수출하고 있다.

3천만불 (주)동원F&B



박인구
(주)동원F&B 대표이사

종합식품회사인 (주)동원 F&B(대표이사 박인구)가 제 42회 무역의 날에 수출 '3천만불탑'을 수상했다.

지난 1982년 국내시장에 참치 통조림을 처음 선보인 이래 동원F&B는 수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냉동·냉장식품, 육가공, 김치, 음료, 전통식품 등 30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하였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한발 앞서 대응한 민첩한 마케팅 활동이 지금의 동원F&B가 있기까지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다.

동원F&B가 한국식품을 전세계에 퍼뜨리며 3천만불 수출의 성과를 올린 것은 입맛의 보수성을 극복하고 세계화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주)동원F&B는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선진국 식품회사 글로벌경영의 벤치마킹, 세계식품박람회 참가 및 시식 행사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여 새로운 판로 개척에 힘쓰고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인의 입맛 확보'에 앞장 설 계획이다.

1천만불 (주)오토닉스



박 환 기

(주)오토닉스대표이사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주)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가 제42회 무역의 날을 맞아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산업 자동화에 필수적인 센서, 제어기기 등을 생산하는 오토닉스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1

년간 총 1,185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산업 자동화 부품 업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0년에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이래 5년 만에 이룩한 성과라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창립 29주년을 맞은 오토닉스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외산 일색이었던 척박한 국내 시장을 개척했다.

현재 국내 업체로는 가장 많은 총 4,000여종의 다양한 제품으로 외산 제품을 제치고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원의 15%에 해당하는 60여명의 R&D 인력 및 연간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R&D 투자를 통해 매년 30여종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또한 외산 제품에 뒤지지 않는 제품 경쟁력으로 1990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개시하고 글로벌 브랜

드로 도약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 전세계 100여개국에 오토닉스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1천만불 (주)세종파마텍



이 원 우

(주)세종파마텍 대표이사

제약·식품용 핵심포장기계를 자체 기술력으로 전문생산하는 (주)세종파마텍(대표이사 이원우)이 1996년 1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2002년 3백만불, 2004년 5백만불 수출의탑 수상과 더불어 올해 1천만불 수출실

적을 달성하며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세종파마텍은 1989년 회사 창립이래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당사 제품이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결과 1993년 미국 ZENITH LAB사에 셀충진기를 처녀 수출하여 미국시장에서의 호평에 힘입어 미국의 여러회사와 프랑스 SIOCRAFT 등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국가에 진출하게 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세종파마텍은 올해 1천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현재 세종파마텍은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및 국내 수입기계 대체 효과로 동종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세종파마텍은 제약포장기계의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과 세계시장 개척에 경주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1천만불 (주)보성인더스트리



임 경 보

(주)보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주)보성인더스트리(대표이사 임경보)가 지난해 5백만불 수출탑에 이어 1년만에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품질 제일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보성은 1988년 8월 다색 열전사지 제작 관련 특허 취득을 시작으로 방수포장지 그 제조 방법 및 재생 방법, 취입 성형용 레이블, 전사지 및 그 제조 방법, 열압 전사지 및 그 제조방법 특허 등 7개의 특허를 받았다. 특히 전사지는 미국과 독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이집트에 처음 수출 물꼬리를 트고 물량을 점차 늘려 가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주력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높다.

해외 영업을 적극 추진해 수출이 까다로운 일본에 고정 거래처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안목과 시야를 가져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외국의 각종 포장 박람회나 포장기계 전시회에 관련 부서 직원들을 빠짐없이 참관시키고 있다.

1천만불 (주)연우



기 중 현

(주)연우 대표이사

화장품 부자재 업체인 (주)연우(대표이사 기중현)가 제 42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1983년에 설립된 연우는 고객감동을 위한 품질경영의 실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경영의

실현, 사회구제를 위한 박애주의의 실현을 경영목표로 전사원이 일치 단결하여 국내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수출도 꾸준히 하여 화장품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가 성장한 추정 3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매출의 55~60%가 수출로 이뤄낸 것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 적극적인 해외 공략을 이뤄내고 있다.

연우 측은 글로벌 기업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질이 우선이라는 개념아래 신제품 연구개발 등 R&D 투자금을 대폭 늘리고 내부 생산혁신을 통해 공장의 자동화를 현실화 시켜 기업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장품 부자재 시장이 유럽과 일본 등이 1% 내외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가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연우는 특히 동남아시아는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공략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1천만불 (주)한국팩키지



이 우 식

(주)한국팩키지 대표이사

1979년 국내 최초로 카톤 팩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유음료 포장용기 시장을 선도해 온 (주)한국팩키지(대표이사 이우식)가 2005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금번 수출탑 수상은 지난 해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1년만에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함께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품질 및 위생관리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국팩키지는 상품의 품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액체포장 용기 전문회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SD 운동'과 'UP GRADE 480'이라는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가치를, 주주에게는 자산가치를, 그리고 임직원들에게는 미래가치를 극대화 하는 가치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HACCP 인증을 획득, 지난 2000년 7월 국내 최초로 카톤팩의 ISO 인증을 획득한 것에 이어 HACCP 부문에서도 국내 최초 인증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5백만불 대은산업(주)



김 종 응
대은산업(주) 대표이사

자동 P.P Band 및 자동포장 기계의 생산업체인 대은산업(주)(대표이사 김종웅)이 제 42회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성공하며 P.P Band를 생산하고 있는 대은산업은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여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포장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대은산업(주)은 일찍이 글로벌시대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수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 결과 5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은산업 임직원은 전세계를 상대

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대은산업은 제품을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최종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국내외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 보다 나은 제품 생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5백만불 영신기계(주)



이 태 호
영신기계(주) 대표이사

국내 평판타발기의 전문제조, 판매, 수출업체로써 198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술축적과 노하우를 지니고 선두주자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신기계(주)(대표이사 이태호)가 '5백만불 수출탑'

을 수상했다.

국내의 수요창출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수출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영신은 중국, 터키, 슬로베니아,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특히 영신의 평판타발기는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 중국 및 세계의 다른 지역에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전시회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대구시청에서 중소기업 대상 최우수상 수상 및 2005년 1월 KS A 9001:2001, ISO 9001:2001 인증 획득, 벤처기업 등록 등 다양한 기술인증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영신은 새로운 기종의 모델개발은 물론, 기존 모델의 성능을 보완, 발전, 그리고 철저한 장인정신과 프로정신을 발휘,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5백만불 위더스케미칼(주)



신 영 수
위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

PVC 수축라벨, PP, PVC 수축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위더스케미칼(주)(대표이사 신영수)이 올해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위더스케미칼은 Shamorok Foosd, Walt Disney사 등 음료수 PVC 라벨을 수출하며, 신규라벨 Perforation 방식을 개발, 실용신안 했을 뿐 아니라 PE 스트레치라벨을 일본 특허에 등록하는 등 국내 포장 업계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PET 수출튜브 개발, PET 시트 회사 인수 등 제품 다양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PET 수축필름, OPS 수축필름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등 탄탄한 중소기업으로써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현재 위더스케미칼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관련 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새로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주력제품인 PVS, PP, PO 쉬링크 필름, PET 쉬링크 Tube, PET 시트 등의 필름 부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5백만불 동원시스템즈(주)



강 병 원
동원시스템즈(주) 대표이사

식품용 캔과 E.O.E 그리고 연포장재, 성형용기와 페트병을 생산하고 있는 동원시스템즈(주)(대표이사 강병원)가 제42회 무역의 날에서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1991년 포장재 사업을 시

작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온 동원시스템즈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연포장공장(성형포함), 경기도 연천의 PET병 공장에 이르는 2개의 생산공장 및 고객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제품의 Concept만 제시하면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및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정상급의 포장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또한 선진 기술의 꾸준한 도입과 이런 기술력을 통해 차별화된 포장문화를 열어가고 있으며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고기능 및 고품의성을 부여한 보다 싸고 질 좋은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조직 역량을 키우고 집중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동원은 당사와 외 약 450여종류의 레토르트 파우치 및 진공포장류, 면류의 연포장재가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앞으로 동원은 꾸준하게 첨단 제품 개발에 도전하여 21세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환경을 최우선으로 기업을 성장할 계획이다.

3백만불 (주)프로템



황 중 국
(주)프로템 대표이사

(주)프로템(대표이사 황중국)이 2004년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05년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SLITTER-REWINDER, COATER, LAMINATOR, TAKE-UP&WINDER, SHEET CUTTER 등의 컨버팅 기계를 주 아이টে็ม으로 원단을 컨트롤하는 등 기술력과 고객만족의 정신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날로 가

속화 되가는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고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해외 기술제휴 및 산학협동을 통해 수준 높은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소비자의 제품 특성에 맞는 설비개발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탈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갖췄으며, 모든 설비에 CIM을 접목, 설비운전 및 유지보수에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프론템은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고객만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컨버팅 업계의 선두두자로 자리매김해 갈 계획이다.

3백만불 (주)한제종합상사



박재홍

(주)한제종합상사 대표이사

한국 최고의 물류포장전문 업체를 목표로 1997년 설립된 (주)한제종합상사(대표이사 박재홍)가 제42회 무역의 날을 맞아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포장에 대한 비용절감과 더불어 효율성 증

대를 위해서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제종합상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친환경적 종이 완충포장 시스템과 열처리 및 방역이 필요없는 인조 목재 포장재가 있으며 그 외 기타 포장에 관련된 자재를 취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종이완충포장시스템인 Padpak Cushioning System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완충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포장시스템이며 그로 인해 인건비, 포장시간, 포장재 보관장소, 포장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한 환경친화적 포장 시스템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품인 인조목재는 싱가포르에서 개발된 독보적인 목재 가공재로써 다양한 수종의 남양재에 혼합원료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가공,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병

충해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폐목재를 활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특히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최근 국제적으로 방역 및 열처리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인조목재는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목포장재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한제종합상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의 품질과 더불어 포장의 품질 및 환경 또한 강조되고 있다"며 "그간 수출입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포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백만불 화신기계공업(주)



김창균

화신기계공업(주) 대표이사

화신기계공업(주)(대표이사 김창균)는 1967년 창립, 성장률이 매년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수출실적 또한 96년 천만불 달성한 이래 2005년에는 3백만불을 달성하였고, 앞으로는 5백만불을 목표로

꾸준한 성장 발전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그라비아 인쇄기, 드라이 라미네이팅기, 코팅기(TFT-LCD) 등 주로 식품포장관련기계 및 광학소지기계를 제작, 공급해 왔다. 그러나 1981년에는 환난으로 인하여 매출이 격강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기계,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기존의 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인쇄기를 탈피하여 일본 도시바기계의 샤프트 없는 섹셔널 드라이브 인쇄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화신기계공업 관계자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고품질의 기계설비 공급, 철저한 A/S 등으로 고객 만족을 꾀할 기업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K]